지역사회 신중년층의 노화태도 및 성공적 노화인식*

Attitudes toward Aging and Successful Aging of New Middle Ages in Community

김 진 욱 (혜전대 사회복지과 교수)

Abstract

Jin Wook Kim

This study examined aging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in the cautious generation. We also examined how attitudes toward aging affect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successful aging and prudent years. First, successful aging in men is higher than in women. The importance of prudential men is reflected in the need to prepare for successful aging before old age. Second, the perception of prudence is very low and there is no positive support. I don't think it's timely. In addition, both men and women believe that individual efforts are important for the stable life of a prudent year. This still means that income from personal efforts is important and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understanding and trust in social security and social capital. Third, aging attitud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uccessful aging and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shaping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 prudent years.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ging also affect one's own aging experiences and the assessment of the elderly.

Keywords: new middle age, new middle age attitude, aging attitude, successful aging perception

I. 서 론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성공적 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사회에서 최근 주목받는 생애주기는 중년 후기부터 노년 초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다. 이들은 중년기와 비슷한 건강

^{*} 본 연구는 2019년 혜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는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말하며, 2017년 「정부부처의 신중년 세대 지원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역사회 내에서 이 세대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2019 년 하반기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초자료를 수집 한 후 실증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 신체능력과 긍정적인 마인드, 활기찬 생활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령시기에 적극 준비하여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에 이르기를 희망한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에 따 라 인구주기의 변화로 발생한 용어가 이 생애단계를 지칭하는 '신중년(new middle age)'세대를 말하는 것이다.1)

정부에서 발표한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에 따르면 신중년에 대한 정책적 정의 는 전체 중에 생산가능 인구의 1/3인 50세~69세까지이다(고용노동부, 2017). 비교적 최근에 정 의된 용어로 '신중년' 용어를 사용한 학술적 연구는 다양하지 않지만, 이 세대의 특징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연구영역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용호, 2015; 신용주·김혜수, 2015). 특히 2010년 이후 전후 베이비부머세대(1955년~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 되면서 아직은 젊지만 직장에서 은퇴한 후 사회적응문제 및 공동체 사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신중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중년 남성'에 주목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책 임지는 신중년 남성은 최근 경제 저성장에 따른 실직 및 퇴직, 조기 은퇴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경쟁사회에서 압박을 받는 이들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거나 '중년 의 위기'로 인한 우울증으로 때에 따라 극단적인 삶을 택하기도 한다2).

이들의 사회적 교류나 공동체에서의 역할, 타인과의 관계 등 사회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김경호·김지훈. 2008). 성공적 노 화는 질병 없이 인지적·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Rowe & Kahn, 1997. 김태호, 2014 재인용).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 며, 자녀에 대한 만족감과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다(김미혜·신경림, 2005). 성공적 노화는 개인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초고령 시대에도 우리 사회가 활기찬 생산력을 계 속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중년 남성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 사회 구조 안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보상과 위신 을 획득한 세대이므로(남순현, 2016), 성공적 노화 역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신체적 변화, 감정 소통의 미숙, 지나친 비즈니스 연대관계에 따른 '외 로움'이나 '무존재로서의 인식'(김종남·한정란, 2017)은 성공적 노화에 걸림돌이라 볼 수도 있 다. 또한 성공적 노화를 희망하는 이들은 타인 또는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사회 시스템에 대 해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또한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¹⁾ 한국고용정보원(2019)이 발간한 '신중년 경력개발 상담자를 위한 역량강화서'에 따르면, 2018년 신중년 인구규모는 1,422만영으로 전체 인구의 27.6%, 생산가능 인구의 31.6%였으며, 2025년에는 약 1,65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1.5%, 생산가능인구의 36%로 전망하고 있다.

²⁾ 통계청 발표에 따른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6.6명으로 OCED가입 후 1위이며, 청소년자살률 증가가 1위이고 그 다음이 중년층의 자살이 늘어났으며, 주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금전적 빈곤,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기업의 구조조정, 은퇴 등)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도 환경변화에 따른 우울증 증가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과 노 년층에 대한 자살예방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사업들은 전무하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신중년 세대의 연구는 신중년 용어 자체가 2017년에 새롭게 제시되어 이 세대를 중심으로 한 학문적, 실무적 차원의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대상집단(target group)을 중심으로 '신중년' 및 노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며, 이들이 갖는 성공적 노화의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 검증하고자 하 였다. 또한 이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아직 신중년의 연령층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세대를 바라보는 연령층을 포괄적으로 대상화하여 인생 2, 3모작을 준비하고 있는 신중년들이 성공적 노화를 완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신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신중년의 정의와 사회적 의미

인간발달에 관한 고전적 연구에서 중년기는 대체로 40세부터 60세 사이로 정의하고 노년기 는 60세 이상으로 정의하였다(Levinson, 1986). Erikson은 생애주기를 8단계로 나누고, 사춘기 이후 노년기까지를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3단계로 구분하며, 30세를 전후한 청년기 이후부 터 65세까지를 중년기, 65세 이후를 노년기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앞둔 현대에는 인생발달주기에 따른 연령구분은 달라져야 한다는 논의 가 대두되었다. 의료·보건, 경제성장, 식량생산증가 등에 힘입어 영유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베 이비붐 현상이 나타났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 현상이 나타나 노년층이 급증하는 고령화 과정이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났기 때문이다(변수정·황남희, 2018). 이러한 고 령화 현상이 이전의 학술적 세대 구분의 기준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한 것이다.

중년 후기나 노년 초기로 분류되었던 50세~65세 미만의 연령층은 초로기(初老期)로 분류하 기도 하고, 2012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 일부 개정안에서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을 장년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를 포함하는 신중년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25%를 차지한다(통계청, 2019). 그들 중 약 60%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소득이나 재산 등 사회 경제적 지위는 '중간층 이상'으로 보는 높은 사회 계층 의식을 가지고 있다.

'신중년'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이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베이비부머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출산 붐이 시작된 1955 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인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이다. 또한 1968~1974년에 출생률이 급증한 점을 고려하여, 1955-1963년 1차 베이비부머, 1968-1974년 2차 베이비부머 로 나누어 정의하기도 한다(최은영, 2015).

베이비부머와 현재 우리사회가 주목하는 신중년 세대의 가장 큰 공통점은 비슷한 연령대로 공통된 사회적 환경을 경험했다는 점이다. IMF 금융위기를 맞았고 수입 대부분을 가족부양에 사용하느라 자신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김태호, 2014). 그들은 부모를 돌보아야 하지만, 자신들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김정란·변은주, 2017). 베이비붐 세대는 절대 빈곤의 시기를 겪고, 빈곤 탈출을 위한 국가 경제개발정책 아래 밤낮없이 일하며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시켰다(손기복, 2014). 그러나 자신들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해, 은퇴 후에도 생존을 위한 일자리를 원한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노후의 건강과 경제적 문제 등에 어떠한 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과 신중년 세대 간의 분명한 차이는 다가올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을 것이냐에 관한 '마인드'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맞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주도적으로 성공적 노화를 이뤄가는 태도를 '신중년 의식'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신중년 세대는 건강한 신체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30년 가까이 지속될 노후를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베이비부머와 연령구분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신중년의 규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신중년은 고령화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다른 연령대와는 확연히 다른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용호, 2015). 그러므로 신중년 세대를 연령기준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용호(2015)의 연구에서도 신중년은 기존의 노년층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정서적 영역에서 비교적 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영역에서도 종교단체나 친목단체, 자원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영역에서도 사전 검진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신중년은 경제적 측면에도 기존의 노년층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경 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신중년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경제를 활성화시킬 소비유도 계층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년층과 비교하여 신중년의 소득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통계청, 2019).

2.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인식

성공적 노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86년 미국 세계노년학회에서 '성공적인 노화'가 언급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이 분야의 연구는 1987년 Rowe & Kahn이 Science에 발표한 Human Aging라는 논문으로 본격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보편적인 노화 (usual aging)와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보편적 노화는 질병상태

는 아니지만, 질병에 걸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늙음으로 인한 관계망 축소 등으로 외롭고 고독하게 살고 있는 노년의 모습으로 언급했다. 이 모델은 전 생애과정을 통해 단지 질병과 장애가 없는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즉,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신체적, 인지적 기능이 유지되기 쉽고. 그것은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인생후기의 도전에 대처하다는 것 이다(송혜자, 2008).

Rowe & Kahn의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부각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퍼졌고, 개념 정의에 많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생리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던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에서 탈피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의 수준이 높고, 삶의 만족이 높으며, 적응의 수준 이 높은 상태라는데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는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잘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해 가는 과정이다.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전제한다(김미 혜 외, 2005). 또 노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개인이 노력하고 적절히 환경을 통제하 여 노화를 극복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질병, 장애 등 위험수준이 낮고, 정신적·신체적 기능은 높으며, 적극적인 인생 참여태 도 등 3가지를 성공적 노화로 제시하였다(Rowe & Khan. 1987, 유재남, 2011). 그는 성공적인 노화와 그렇지 않은 노화의 설명을 단순히 질병의 유무상태로만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며,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생산적 활동이 가능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또 세 가지 개념은 위계적 순서를 갖는다. 즉 질병과 장애가 없어야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유지되고, 정신 적·신체적 기능이 잘 유지되어야 적극적으로 인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경호, 2009).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추가한 Wong(1989)은 비록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심리적, 사 회적 건강과 삶의 만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송기영, 2018). Baltes & Baltes(1990)은 성공적 노화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며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하고, 관련된 기술을 최적화하여 부족함을 보충 한다고 제시하였다(조혜경, 2002). 노화로 인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을 선택하고 최 적화하여 보상한다는 것이다. Fisher(1995)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감각이며, 성공적 노화 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생애 발달 과정단계로, 노년기에 경험하는 여러 변화에 적극적으 로 적응,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지민경, 2016).

홍현방·최혜경(2003)은 성공적 노화를 자신의 과거·현재를 받아들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의 식을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없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 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서병진(2007)은 성공적 노화가 노년기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자신의 내적, 외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어진 환경 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이 가능해야 한 다고 정의했다. 박형란(2010)은 생물학적 변화에 한정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자기를 인식하고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	1>	성공석	노화의	개념들

연구자	성공적 노화를 규정하는 요인들
홍현방(2001)	심리적 측면에서 자아개념과 통제, 사회적 접촉과 가족의 접촉, 신체적·정신적 건강
박경란·이영숙(2002)	자육,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 완수, 자아 수용, 상호 교류, 봉사
강 인(2003)	신체적·정서적 안녕, 개인성장, 자율성, 경제적 안정, 가족 지향
김미혜·신경림·강미선· 강인(2004)	행복의 관점-부부, 자녀, 친구, 재산, 여가, 건강, 죽음, 거처, 마음 등
김미혜·신경림(2005)	효능감, 배우자, 자녀의 성공, 자기통제 등
백지은 최혜경(2005)	자기관리, 사회적 자본 확보, 순조로운 삶, 과시 등
성혜영 조희선(2006)	생산적 활동, 건강 장수, 사회관계망, 사회적 지지 등
윤형준(2010)	심리적 안녕감, 신체적 건강, 사회적 지지
이향란(2013)	생산적 활동, 자아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출처: 윤형준(2010),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재구성

정리하면, 성공적 노화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다가올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지 않고 행복감을 유지하고, 신체·정신·정서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남성의 성공적 노화는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고 보았다(홍승정·윤미경외 3인, 2013). 신체적 건강,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심리적 요인 등에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에 남성의 성공적 노화가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이 시기의 남성들은,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여 독립했거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은퇴를 경험했거나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을 수 있다. 또한 우울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어 사회관계망이 좁아지는 것을 실감하기도 한다(서성만, 2018). 이들의 노화특징은 외로움과 우울 등 심리적인 요인이다(김애순, 2012). 우울의 원인은 노화에 대한 불안과 직업의 불안정 또는 적은 수입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차은정·이순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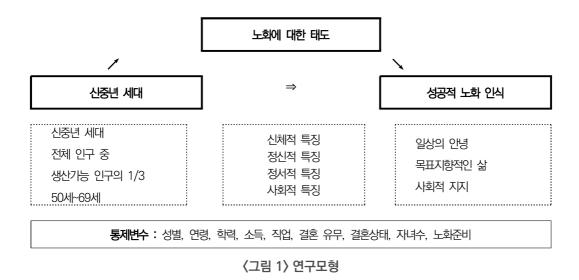
신중년기를 맞는 남성들에게 무엇보다 큰 심리적 스트레스는 실직이다. 직업은 개인이 자아 정체감과 사회 소속감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중요한 원천이며(권석만, 2008), 여성과 비교하여 직업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경제적 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이 남성에게 있고, 직업에서 오는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자녀 또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확장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에 있어서 가족 관계적 지향을 보이는 여성과 달리 남성들은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 지향의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크다(박경란·이영숙, 2002). 남성노인도 여성노인에 비해 타인에게 자신을 과시하여 자신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성공적 노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고도 본다(백지은·최혜경, 2005). 이는 고령화 사회에 우리 사회가 생산성을 유지하고 활동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남성의 성공적 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홍승정 외 3인, 2013).

3. 연구 분석의 틀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신중년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인 노화인식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Ⅲ. 신중년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실증연구

1. 조작적 정의

1) 신중년의 개념

중년 후기부터 노년 초기에 해당하는 50-69세 연령으로 중년기의 건강상태를 잘 유지하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적극 적으로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여 성공적 노화를 완수할 의지가 있는 남성 및 여성을 신중 년으로 정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신중년 준비세대 즉 예비 신중년인 40대 후반을 조사대 상에 일부 포함하였다. 이는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은퇴 및 실직)들을 표본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2) 일상의 안녕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면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자녀와의 독립적인 삶을 주요하게 생각하며, 부부의 중요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노년기 자체에 의미를 가지고 자신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또 외적인 차원과 내적인 차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것이다(인은영, 2014; 장은주, 2017).

3) 목표지향적인 삶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노년기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등의 자신의 삶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최인영, 2007).

4) 사회적 지지

현재의 삶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삶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 가는 성장 과정이다. 이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관계 및 활동의 중요성은 여러 경험적연구를 통해 일관성 있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는 친구, 이웃, 직장 및 사회단체동료와의 사회적 연계로 오랜 시간에 걸친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켜줌으로써 노년기의 보다 나은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Crosnoe & Elder, 2002).

5) 노화에 대한 태도

태도는 개인의 사적, 주관적 구조로 노인 혹은 관련된 상황에 역동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일컫는다. 노인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들의 강도와 반응에 대한 평가의 함수이다(한정란, 2004).

노화에 대한 태도의 본격적인 연구는 195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1960년대 후반부

터 노화에 대한 태도 측정에 큰 진정을 보이게 되어 다양한 척도. 질문지 등을 개발하면서 체계 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김정옥, 2017).

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신의 노화 경험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 을 미치며,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변화와 정신적인 성장을 포함 하는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 공적인 노화의 인식이 높다(Top 외, 2013).

2.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신중년이 노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이 갖는 노화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신중년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중년의 일반적인 특징 및 성별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신중년의 노화에 대한 태도. 성공적인 노화. 신중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신중년의 노화에 대한 태도, 성공적인 노화, 신중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상호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신중년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 및 신중년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신중년이 노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며, 이들이 갖는 노화에 대한 태 도와 성공적 노화 및 신중년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작성하고 결과를 측정하였다. 측정을 위해 충남도를 구성하고 있는 15개 시군(8개 시와 7개 군)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9년 6월24일부터 약1주일간 실시하였다. 응답한 설문결과 중 일부의 부실 데이터를 제외하고 총 242개를 최종 분석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신중년 용어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 인식의 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카이스퀘어 검증과 일표본 t-검정,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여 특징을 살 펴보았다. 또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과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성공적 노화의 요인에 대한 Cronbach's α값은 일상의 안녕이 .860, 목표지향적인 삶이 .886, 사회적 지지가 .903으로 매우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노화에 대한 태도는 .752, 신중년에 대한 평가 .876로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Ⅳ. 신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1. 신중년 세대의 일반적인 특징 및 성별 차이

설문응답자(242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 일표본 t검정, 교차분석 및 카이스 퀘어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67.4%, 남성이 32.6%로 2:1의 비중으로 결과에 반영되었다. 연령은 평균 52.19세이며, 50세 이하 42.8%, 51~60세가 41.9%로 나타났다. 이중 결혼 형태는 결혼은 89.8%로 가장 많았다. 결혼기간은 평균 18.49년으로 21~30년의 결혼기간이 30.5%로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평균 1.97명(표준편차 .788)로, 2명인 경우가 60.6%로 가장 많았고, 3명인 경우 18.2%, 1명인 경우도 14.4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산시 30.9%, 홍성군 14%, 예산군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자의 거주지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이다. 가정의 한 달 평균소득은 월 394만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 366.989). 평균소득은 폭넓은 연령대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므로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丑 2〉	인구사	회학적	속성
-------	-----	-----	----

	구분	응답자(n=236)	백분율(%)	평균(SD)
성별	남자	77	32.6%	
[경달	여자	159	67.4%	_
	50세 이하	101	42.8%	52.19
연령	51~60세	99	41.9%	(표준편차
61세 이상	36	15.3%	7.470)	
	무응답	1	.4%	
	미혼	9	.38%	
결혼여부	기혼	212	89.8%	_
	사별	8	3.4%	
	기타	6	2.5%	
	무응답	52	22%	
	10년 또는 그 이하	16	8.8%	18.49
결혼기간	11년 ~ 20년	45	22.9%	(표준편차
	21년 ~ 30년	79	30.5%	12.556)
	31년 이상	35	12.7%	

인구사회학적 속성과 관련하여 학력, 직업, 자녀에 대한 책임,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해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에 대한 성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직업에 대한 교차분석 및 카이스퀘어 검정이 유의수준 0.05보다 낮은 .000으로 나타나 성별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결과 는 아래 〈표3〉부터〈표6〉의 결과와 같다.

〈丑 3〉	학력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	----	-------	------	----

		성		저구미	
			남	여	전체
		빈도	1	0	1
	무응답	전체 %	.4%	.0%	.4%
	초졸 이하	빈도	0	2	2
	조글 이이	전체 %	.0%	.8%	.8%
	중졸	빈도	0	6	6
학력	∂ 2	전체 %	.0%	2.5%	2.5%
의 역 역 	고졸	빈도	25	55	80
		전체 %	10.6%	23.3%	33.9%
	전문대 또는 대학졸업	빈도	38	79	117
	선군대 조근 대역할답	전체 %	16.1%	33.5%	49.6%
	대학원 이상	빈도	13	17	30
	대역된 이경	전체 %	5.5%	7.2%	12.7%
	THE		77	159	236
	전체	전체 %	32.6%	67.4%	100.0%

 x^2 =7.574° *p\(\).05, **p\(\).01, ***p\(\).001

〈표 4〉 직업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성	별	전체	
			남	여	신제
	무응답	빈도	2	1	3
	Tō⊟	전체 %	.8%	.4%	1.3%
	단순노무직	빈도	1	5	6
	고 <u></u> 고고구식	전체 %	.4%	2.1%	2.5%
	운수기능직	빈도	1	0	1
	포구기증격	전체 %	.4%	.0%	.4%
, , , , , , , , , , , , , , , , , , ,	人H 人トフトー 大丁	빈도	1	2	3
	생산기능직	전체 %	.4%	.8%	1.3%
	서비스직	빈도	2	14	16
		전체 %	.8%	5.9%	6.8%
	II 🗆 T I	빈도	17	38	55
	사무직	전체 %	7.2%	16.1%	23.3%
	700	빈도	27	21	48
	공무원	전체 %	11.4%	8.9%	20.3%

	해저 자기지	빈도	4	4	8
	행정 관리직	전체 %	1.7%	1.7%	3.4%
	TICHCH	빈도	5	9	14
	자영업	전체 %	2.1%	3.8%	5.9%
	저무지 그지	빈도	4	9	13
	전문직 교직	전체 %	1.7%	3.8%	5.5%
	⊼ H	빈도	0	39	39
	주부	전체 %	.0%	16.5%	16.5%
	느 중 시 시 이	빈도	5	10	15
	농축수산업	전체 %	2.1%	4.2%	6.4%
	기타	빈도	8	7	15
	/IF	전체 %	3.4%	3.0%	6.4%
	저귀	빈도	77	159	236
2	전체	전체 %	32.6%	67.4%	100.0%

 x^2 =42.546°*** *p<.05, **p<.01, ***p<.001

〈표 5〉 자녀에 대한 책임 교차분석과 카이제곱 검정

		성	별	저ᆌ	
			남	여	전체
	무응답	빈도	3	4	7
	+ 5∃	전체 %	1.3%	1.7%	3.0%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빈도	6	11	17
	고등학교 클립일 때 까지	전체 %	2.5%	4.7%	7.2%
	대학교 대학원 졸업할 때	빈도	24	76	100
エロヨデルのロ	까지	전체 %	10.2%	32.2%	42.4%
자녀책임	취업할 때 까지	빈도	22	39	61
		전체 %	9.3%	16.5%	25.8%
	결혼할 때 까지	빈도	16	18	34
		전체 %	6.8%	7.6%	14.4%
	결혼 후에도 필요하다면	빈도	6	11	17
	책임	전체 %	2.5%	4.7%	7.2%
	저궤	빈도	77	159	236
	전체 	전체 %	32.6%	67.4%	100.0%

 $x^2=7.379^a *p\langle.05, **p\langle.01, ***p\langle.001$

			성	별	저궤	
			남	여	전체	
	무응답	빈도	0	1	1	
	Tō∺	전체 %	.0%	.4%	.4%	
	개인	빈도	34	70	104	
	게인	전체 %	14.4%	29.7%	44.1%	
	TITLƏII	빈도	3	10	13	
신중년	지자체	전체 %	1.3%	4.2%	5.5%	
세대의 삶에	기업	빈도	0	3	3	
대한 노력의 주체		전체 %	.0%	1.3%	1.3%	
	지역사회	빈도	11	33	44	
		전체 %	4.7%	14.0%	18.6%	
	조이되니	빈도	29	41	70	
	중앙정부	전체 %	12.3%	17.4%	29.7%	
	기타	빈도	0	1	1	
	/IU	전체 %	.0%	.4%	.4%	
	TJ = II		77	159	236	
	전체	전체 %	32.6%	67.4%	100.0%	

〈표 6〉 신중년 삶에 대한 노력의 주체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

 $x^2=6.592^a *p(.05, **p(.01, ***p(.001))$

2. 신중년의 노화에 대한 태도, 성공적인 노화, 신중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F-검정 결과 유의확률(p-value)이 0.05보다 작으면 두 집단의 분산이 서로 다르다고 판정함에 따라 노화준비 신중년 용어 평가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t검정 결과에서는 2개의 항목에 대해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를 보면, 노화준비와 신중년 용어에 대한 긍정 및 부정에 대해서는 남녀 차이가 없는데 반해, 신중년 용어를 인지하거나 사회적으 로 시의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井 7	〉 선변 노하주비	시주녀	요어 평가	진다토계랴	독립표본 t검정
\ 	/ O Z	F: O F:	O'I O'I	HEOTIO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값/F
ᅵᅙᅼᄌᆸᅵ	남	77	6.26	2.209	2 102
노화준비	여	159	5.97	1.886	3.183
시즈녀 요이 이디	남	77	2.62	1.288	6 240*
신중년 용어 인지	여	159	2.88	1.081	6.348*
시즈네 오시 편기	남	77	3.31	.892	2 200
신중년 용어 평가	여	159	3.31	.787	3.288
나자녀 이이의 나자	남	77	3.17	1.069	6 527*
신중년 용어의 시의적절성	여	159	3.33	.824	6.537*

^{*}p<.05, **p<.01, ***p<.001

성공적 노화 요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신중년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공적 노화요인 중 일상의 안녕, 사회적 지지는 각각 2개의 요인으로 회전 수렴되었으며, 목표지향적인 삶은 단일 회전으로 수렴되었다. Cronbach's α값 0.8 이상의 신뢰도 있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일상의 안녕은 각각 가족 및 주변인 차원, 경제적 안정차원으로, 사회적 지지는 가족과 주변의 상호작용 차원과 사회적 자원 활용(교통 및 시설이용) 차원으로 명명하였다.

〈표 8〉 성별 성공적 노화 및 노화에 대한 태도, 신중년 평가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t검정

	성별	N	평균	표준 편차	t값/F	
일상의 안녕1	남	77	0331706	.89522462	4.895*	
	여	159	.0160638	1.04930896	4.090	
일상의 안녕2	남	77	.0615483	.92294255	1.206	
글러 한당스	여	159	0298064	1.03675646	1.200	
무표지향저 사	남	77	.0823547	.93601449	.866	
목표지향적 삶 	여	159	0398824	1.03005315	.000	
사회적 지지1	남	77	.2638353	.98067529	.009	
시외력 시시	여	159	1277693	.98711125	.009	
사회적 지지2	남	77	.0150606	1.08316056	.962	
시외력 시시2	여	159	0072935	.96064351	.902	
 노화에 대한 태도1	남	77	.2811165	1.06079477	.669	
도와에 대한 대포 I	여	159	1361382	.94281567		
 노화에 대한 태도2	남	77	.0264372	1.12692921	3.599*	
도와에 대한 대 포 2	여	159	0128029	.93592993	3.599	
 노화에 대한 태도3	남	77	.0864425	.95364768	.159	
도와에 대한 대 포 3	여	159	0418621	1.02199934	.109	
노화에 대한 태도4	남	77	.2259211	.98887678	.092	
도와에 대한 대 포 4	여	159	1094083	.98997494	.092	
신중년 평가1	남	77	.1457799	1.06688051	.169	
선당한 당기 	여	159	0705978	.96149068	.109	
신중년 평가2	남	77	.2123925	1.04910334	.664	
건중한 경기4 	여	159	1028567	.96192512	.004	
신중년 평가3	남	77	0292884	.90633138	2.392	
191 9/19	여	159	.0141837	1.04479657	2.032	

^{*}p<.05, **p<.01, ***p<.001

노화에 대한 태도는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4개 요인(신체, 정신, 정서, 사회)의 동질적인 개념의 요인으로, 신중년에 대한 평가도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3개의 동질적인 개념의 요인으로 회전 수렴되었다. 이는 내적동질성을 가진 단일회전으로 Cronbach's α 값도

모두 0.8 이상의 신뢰도 있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신중년 평가1은 다소 긍정적 대인관계 및 상 호작용성 차원(낙천, 긍정, 개방, 활동, 민주적 등), 신중년 평가2는 다소 부정적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성 차원(희생, 검소, 원칙적 등), 신중년 평가3은 법적지와 경제력 차원으로 명명하였 다. 성별 성공적 노화 및 노화에 대한 태도. 신중년 평가 집단통계량.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일상 의 안녕1과 노화에 대한 태도2에 대해서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신중년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인 노화 및 인식과 태도의 상호관련성

신중년의 노화에 대한 태도, 성공적인 노화, 신중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선형관계가 있는 지 탐색 및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범주형 변수인 성별, 학력에 대해 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변수로 포함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별, 소득별, 노화준비에 대해서 많은 요인들과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서 많은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였다. 즉 연령의 많고 적음이 학 력 및 소득, 일상의 안녕1에 부적(-) 상관관계, 노화준비, 노화에 대한 태도1, 신중년 평가1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일상에선 편안할수 록 노화준비에 대한 염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노화준비가 충분하고 긍정적이며 평 가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노화에 대해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화준비는 대부분의 성공적 노화요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1, 신중년 평가1에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성공적 노화요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신중년 평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대부분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9) 요인 별 상관관계 분석

1 - 150* 4 - 10*			1		Ti di				소 년0	성공적 노화 요인	징		는 사 사	문항에 나	문항생 나	도 화에	II K	II K	TK K
(4) (4) (4) (4) (4) (4) (4) (4) (4) (4)			(교교)	요기 0교	(교급)	선	의 교	일상의 안녕1		되 지 과 자 사 라	사회적 지지1	사회적 지지2	높 证	대한 태도2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사	대한 태도4	생전 평가	생장 평가2	면 면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全員 1 - 266* - 207* 138* - 205* 0.75 0.75 0.69 1.98 1.98* 282* 0.70 0.75 0.		성별(더미)	<u></u>	150*		119	067	.023	043	057	184**	011	196**	018	060	158*	102		.020
학력(대미) 1 108 124 108<		ති		_	.256**	1	.138*	205**	.075	.072	069	.108	.199**	.282**	.003	.034	.221**	073	.002
本手 公 1 0.66 2.77* 064 1.36* 064 .106 109 084 .106 109 084 .108 108 084 .060 108 084 .087 .244* .083 084 .087 .244* .083 084 .087 .244* .083 084 .087 .244* .083 084 .087 .244* .083 084 087 .244* .083 084 087 084 .		학력(더미)			_	.108	.124	.103	.018	.103	080	.033	.044	161*	.136*	011	.037	.061	.068
부원하는 1 .042 .134 .035 .234* .344* .035 006 .103 .31* .34* .34* .035 012* .103 .103 .31* .34*		삭				_	.056	.227**	001	.054	.136*	064	090.	109	042	.047	.103	.129*	069
의상의 안녕 입 1 0.00 3.51** 2.46** .103 035 212** .277** .277** .277** .277** .277** .277** .277** .274** .174** .163 .174** .164* .174**		노화준비					_	.042	*131*	**661.	.035	.234**	.344**	.035	900'-	.065	.103	.321**	.004
의사의 인생경 대한적상 1 432** 229** 346** 0.57 243** 1.63* 1.14* 1		일상의 안녕1						_	000.	.351**	.246**	.103	035	212**	.277**	360.	014	.123	860.
독표시한적심 1 .600** .477** .201** .324** .327** .277** .217** 사회적 지지기 1 .000 .061 120 .324** .294** .294** .217** 카에 대한 대도기 1 .000 .001 .000 .000 .000 .000 .000 .133* .230** 화에 대한 대도기 1 .274** .169** .254** .294** .048* .018* 화에 대한 대도기 2 1 .000 .000 .000 .000 .133* .230** 화에 대한 대도기 3 2 .000 .000 .000 .000 .000 .100* .001 사용년 평가 3<	사 다 전	일사의 안녕2							-	.432**	.229**	.346**	.057	.243**	.163*	.136*	.174**	*191.	.011
사회적 지지1 사회적 지지1 1 .000 .061 120 .282** .254** .294** .085 사회적 지지2 사회적 지지2 1 .001 .001 .002** .102 .133* .230** 함에 대한 태도1 1 .002 .000 .000 .000 .000 .184* .264** 함에 대한 태도2 2 1 .000 .000 .000 .000 .184* .264** 함에 대한 태도3 3 3 3 3 3 .015	3 시	목표지향적 삶								_	**009	**//	.201**	.017	.324**	.272**	.327**	.217**	.238**
사회적 지지2 사회적 지지2 사회적 지지2 1 274** 169** 232** 102 133* 230** 대한 태도2 대한 태도2 1 000 000 000 104** 264** 대한 태도2 1 000 000 000 100 100 105 대한 태도3 2 1 000 000 000 190** 002 대한 태도3 3 3 4 3 4 4 100 대한 태도3 3 4 4 4 4 4 4 4 대한 태도3 4 4 4 4 4 4 4 4 급명기 4 4 4 4 4 4 4 4 급명기 4 4 4 4 4 4 4 4 급명기 4 4 4 4 4 4 4 4 급명기 4 4 <th< td=""><td>od G</td><td>사회적 지지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_</td><td>000.</td><td>.061</td><td>120</td><td>.282**</td><td>.254**</td><td>.294**</td><td>.085</td><td>.138*</td></th<>	od G	사회적 지지1									_	000.	.061	120	.282**	.254**	.294**	.085	.138*
대한 태도1 (100 (100 (184** 264**) (1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194*		사회적 지지2										_	.274**	**691.	.232**	.102	.133*	.230**	.195**
대한 태도2	Ļ.	화에 대한 태도1											_	000.	000.	000.	.184**	.264**	.122
1	고	화에 대한 태도2												_	000.	000.	035	.015	041
1 .171** .140*	는 도	학에 대한 태도3													<u></u>	000.	**061.	.002	.085
	Ļ.	화에 대한 태도4														-	.171**		.219**
	,-	신중년 평가1															1	000	000.
신중년 평가3	7-	신중년 평가2																1	000.
	,-	신중년 평가3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4. 신중년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 및 신중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중년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요인 및 신중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모두 유의확률 p=0.000으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ㅁ춰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계수		유의		
	모형	В	표준화오류	베타	t	확률		
	(상수)	2.059E-16	.060		.000	1.000		
	일상의 안녕1	116	.067	116	-1.735	.084		
성공적인	일상의 안녕2	109	.070	109	-1.553	.122		
노화	목표지향적 삶	.083	.104	.083	.806	.421		
요인	사회적 지지1	011	.084	011	132	.895		
	사회적 지지2	.195	.078	.195	2.497	.013		
신중	년 평가1	.151	.066	.151	2.292	.023		
신중	년 평가2	.234	.063	.234	3.690	.000		
신중	년 평가3	.078	.064	.078	1.226	.221		
R2		.137						
	F			5.661***				
Durbi	n-Watson			1.654				

〈표 10〉 노화에 대한 태도1 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적으로 노화에 대한 태도 4개 요인 모두 성공적 노화요인과 신중년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상관관계 결과에서는 나타난 바와 동일한 결과이다.

〈표 11〉 노화에	대한 태도2	다숭선형 회귀문석
------------	--------	-----------

ㅁ췅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계수	+	유의			
	모형	В	표준화오류	베타	t	확률			
((상수)	-1.427E-16	.062		.000	1.000			
	일상의 안녕1	204	.068	204	-3.003	.003			
 성공적인	일상의 안녕2	.229	.071	.229	3.212	.002			
노화	목표지향적 삶	.048	.105	.048	.458	.648			
요인	사회적 지지1	123	.085	123	-1.436	.152			
	사회적 지지2	.110	.079	.110	1.390	.166			
신중	년 평가1	072	.067	072	-1.072	.285			
신중	년 평가2	022	.064	022	348	.728			
신중년 평가3		039	.065	039	609	.543			
R2		.106							
	F	4.496***							
	n-Watson			2.048					
*p<.05, **p	√.01, ***p<.001		·						

^{*}p<.05, **p<.01, ***p<.001

⟨₩ 1	2) 4	- 화에	대하	태도3	다주성형	회귀분석
\ 		ᆫᆂᆝᆝ	-1171			3 1177 - 1

	모형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工名	В	표준화오류	베타	ι	확률			
((상수)	1.732E-16	.060		.000	1.000			
	일상의 안녕1	.221	.066	.221	3.358	.001			
성공적인	일상의 안녕2	.046	.069	.046	.664	.507			
노화	목표지향적 삶	.003	.102	.003	.029	.977			
요인	사회적 지지1	.194	.083	.194	2.347	.020			
	사회적 지지2	.201	.077	.201	2.611	.010			
신중년 평가1		.101	.065	.101	1.548	.123			
신중년 평가2		096	.062	096	-1.537	.126			
신중	년 평가3	004	.063	004	059	.953			
	R2	.161							
	F	6.635***							
Durbii	n-Watson			2.119					

^{*}p<.05, **p<.01, ***p<.001

〈표 13〉 노화에 대한 태도4 다중선형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	화 계수	표준화계수		유의		
	보영	В	표준화오류	베타	t	확률		
((상수)	1.960E-16	.062		.000	1.000		
	일상의 안녕1	.005	.068	.005	.066	.947		
 성공적인	일상의 안녕2	.042	.071	.042	.584	.560		
노화	목표지향적 삶	.094	.106	.094	.889	.375		
요인	사회적 지지1	.122	.086	.122	1.428	.155		
	사회적 지지2	032	.080	032	402	.688		
신중	년 평가1	.101	.067	.101	1.505	.134		
신중년 평가2		.110	.065	.110	1.698	.091		
신중	년 평가3	.185	.065	.185	2.850	.005		
	R2	.102						
	F	4.335***						
Durbi	n-Watson			2.095				

^{*}p<.05, **p<.01, ***p<.001

V. 결론 및 연구의 함의

현대사회의 개인들은 긴 노년기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전체 인구 의 20%를 차지할 노년인구에 대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0세~69세의 신중년 세대의 노화에 대한 태도 및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세 대로 등장한 신중년에 대한 태도를 점검하였다. 이들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와 신 중년의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남성의 성공적 노화는 여성의 성공적 노화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점이다(정여진·안정신, 2010; 김희경, 2012; 홍승정·윤미경 외 3인, 2013). 신체 적 건강요인,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요인, 심리적 요인 등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이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남성의 성공적 노화가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 노년기 전에 성공적 노화를 위한 준비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년 남성의 중요성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같은 특징 을 보여 주는 바, 성별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 및 신중년에 대한 태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둘째, 고령시대에 성공적 노화를 희망하는 신중년 세대들은 타인 또는 정부, 지자체 등 다양 한 사회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결과에서 신중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긍정적 지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도 부족하다. 또한 남녀 모두 신중년 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로 주로 '개인'에게 한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여전히 신중년의 삶이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소득에 좌우된다고 보는 것이 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과 이해,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었다. 아울러 본 연구한계와 같이 신중년의 삶에 비중이 높은 경제적 요인 에 대해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직업에 상관없이 가정소득으로 질문이 이루어져, 비교적 높은 평균소득으로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또 거주지, 예를 들면, 농촌과 도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연구의 시도가 필요하며, 정책적 측면의 제언과 방향이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에 대한 태도는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며, 신 중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선행연구에서 Baltes & Baltes(1990)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설명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에게 중요한 활동이나 목표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최적화하여 부족함을 보충한다고 하였다(조혜경, 2002에서 재인용). 또 노화에 따른 상실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능력을 선택하고 최적화하여 노화로 인한 상실 을 보상한다고도 하였다. 또한 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신의 노화 경험뿐만 아 니라 노인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노화태도가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일수록 성공적인 노화의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준비함으로써, 신중년 세대로서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를 가져오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도적 표집으로 인한 지역적 편중과 아울러 현재 신중년에 해당하지 않는 연령층의 개입과 여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성별에 따른 한계가 결과의 대표성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수 있다. 물론 신중년의 범주가 기존의 중년과 노년을 아우르며 매우 폭넓은 세대라는 특징이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연령의 세분화하여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또 성별에 따른 할당표집을 이용해 결과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성별에 따른 연구는 신중년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경제적 요인, 즉, 직업과 소득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보다 구체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심도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호. (2009).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요인의 구조 분석. 「한국노년학」, 29(1): 71-87.
- 김경호·김지훈. (2008). 삶의 만족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 유배우자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3(2): 87-106.
- 김미혜·신경림. (2005).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정란·변은주. (2017). 베이비부머 세대의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25(2): 98-104.
- 김종남·한정란. (2017). 베이비붐 세대 부모의 부양기대와 에코붐 세대 자녀의 부양의식. 한국노년 교육학회. 「노년교육연구」, 13(2): 81-96.
- 김종선. (2016). 「한국 노인의 사회기여활동 참여가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김양호. (2003). 중년남성의 남성의식, 직장생활 및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1): 99-120.
- 김태호. (2014). 「베이비부머 퇴직자의 사회적 자본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경. (2012).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Journal of Korean

- Gerontological Society, 32(3): 819-834.
- 남순현. (2016). 남성노인의 일과 여가에 대한 생애사 연구.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13(2): 71-108.
- 박경란·이영숙. (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박형란. (2010). 「한국노인의 성공적 노화 과정」,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지은·최혜경. (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 학회지」. 23(3): 1-16.
- 변수정·황남희. (2018).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 258.
- 서성만. (2018). 「베이비부머 세대 남성 예비은퇴자의 은퇴불안과 관련변인」. 가톨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신용주·김혜수. (2015). 초로기 신중년을 위한 융합형 평생학습모델의 탐색. 「한국성인교육학회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8(2): 152-168.
- 송기영. (2018). 「장애노인의 노후준비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과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재남. (2011). 「노년기 성공적 노화와 삶의 만족도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형준. (2010).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인식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호. (2015). 「신중년의 존재규명과 소비형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원경·한정란. (2009). 중년기 직장남성의 직업에 대한 태도: 공무원과 일반기업 종사자를 대상으 로. 「직업교육연구」, 1(28): 43-61.
- 조혜경. (2002).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 노인들의 성인학습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 무.
- 지민경. (2016). 「중장년층 성인학습자의 성찰학습수준과 노후준비의식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은정·이순희. (2015). 중년남성의 우울, 외로움, 사회적 지지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 료분석학회 Journal of Korean Analysis Society」, 17(5): 2705-2717.
- 최은영. (2015). 「1,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준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영. (2007). 「한국 중년세대의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 홍승정·윤미경·이세원·안혜경·유시영. (2013). 중·노년층 남성의 성공적 노화 영향요인. 「 Journal of Kore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275-3283.

홍현방·최혜경. (2003). 성공적인 노화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한국가정학회지」, 21(2): 145-154. 통계청. (2017, 2019). 「연령별 인구통계 비율」, 고령화 지표.

고용노동부. (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ing: 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pp. 1-34).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Work: Norton.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NY: Free Press. 구승회 역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Gidden, A. (2009). Sociology. 김미숙·김용학·박길성 외 공역(2011). 서울: 을유문화사.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 3-13. Tyler(Eds).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114-139. London, UK: Sage Publication.

Rowe, J. W. & Khan, R. L. (199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ence, 237(4811): 143-149.

> 접수일(2019년 12월 01일) 수정일(2019년 12월 22일) 게재확정일(2019년 12월 24일)

〈국문초록〉

지역사회 신중년층의 노화태도 및 성공적 노화 인식 연구

본 연구는 신중년 세대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성공적 노화의 인식관계를 점검하였다. 또한 노화에 대한 태도가 성공적 노화와 신중년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첫 째, 남성의 성공적 노화는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 이전에 성공적 노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년 남성이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둘째, 신중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고, 긍정적 지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견해도 없었고, 남녀 모두 신중년의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주체로 '개인'에게 치중하는 경향이 두드러 졌다. 이것은 신중년의 삶이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소득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보장 제도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과 이해,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노 화 태도는 성공적인 노화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으며, 신중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노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자신의 노화경험 과 노인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신중년, 신중년 태도, 노화 태도, 성공적 노화 인식